



③ 인사말

개회사

힘껏 우리 대회를 축제로 만듭시다



김 태 승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전국 각지에서 오늘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국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상완 위원장님,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함께 개최하는 우리협회 12개 산하협회의 회장님! 감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우리 전국도서관대회를 찾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의 뜻을 새겨 “선진일류국가시대, 도서관의 비전과 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

로 발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부족한 기본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그간의 발전을 발판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의 여러 상황이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 중심의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생존과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당위가 아닌 고객의 지지와 애정, 참여를 통해 도서관과 고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나 운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 사람들이 먼저 도서관의 참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지켜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의미있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드러낼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앞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서관계가 함께 당당히 그 장애를 넘어 우리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연대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당당한 실천의지를 나눕시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들의 참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번 대회도 역시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해 주실 분들과 도서관문화전시회에 참가하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이 도서관대회가 한껏 더 멋지고 풍요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이 아닌 축제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늘 도서관 현장에서 바빠 일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뜻을 같이 한 동료,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뜨거운 정열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진솔한 대화와 즐거운 만남을 통해 내년 대회까지 각자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회원과 도서관계 동료 여러분, 내외 귀빈과 업계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함께 오늘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즐거운 축제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박 광 태
(광주광역시 시장)

존경하는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님과 전국의 도서관 가족 여러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가 문화수도와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광주에서 열리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식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식정보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서관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일류국가시대, 도서관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서관 정책 관련 주제발표와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인들과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 교류와 토론의 장이 되어서, 보다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방안들이 많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창조와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활동 정도가 경제발전과 사회구조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시대를 여는 산실이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터전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도서관계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새로운 「도서관법」이 마련되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도서관의 청사진을 담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지식경제 발전의 엔진역할을 할 도서관의 혁신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시는 도서관인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고객 감동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 제공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문화와 민주, 인권의 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아시아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도서관 선진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큰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요즘 트렌드로 바꾸면 “책 속에 미래가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첨단정보시대에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책이야말로 미래 세계를 여는 가장 친절한 안내자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는 명제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빛고을 광주에서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 교육과 문화 모두를 아우르는 지식정보의 중심센터입니다. 도서관이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창의력의 원천인 지식정보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작년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발족되어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 9월에는 모든 관중을 아우르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정책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도서관인 여러분! 여러분의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 책임과 열정으로 국민에게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 가능성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광주 대회가 새 희망과 추억을 나누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이 대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 여러분, 관련업계 여러분들과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님, 박광태 광주시장님, 안순일 광주시교육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사



안순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곳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관중별 도서관협의회들이 대거 참여하고 많은 관계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회가 더욱 성대하게 펼쳐지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지식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이며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상의 문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공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지금 전 국민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며, 독서율과 1인당 GDP간에 상관관계가 밀접해 잘사는 나라일수록 독서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최근 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0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이상의 연간 독서율은 81%로 EU 평균 및 미국보다 높은 7위권에 해당했으며, 독서량도 성인 1인당 연평균 독서량은 12.1권이며 초중고 학생은 13.5권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독서증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도서관 수를 2007년 말 기준 OECD 주요국가 공공도서관 수와 비교해 보면, 독일이 10,339개, 미국 9,198개에 이어 프랑스·영국 그리고 일본이 3, 4천개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인데 비해 607개에 불과하며, 국민 1인당 장서수에 있어서도 핀란드가 7.15권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덴마크, 미국, 일본 순이며 우리는 1.1권으로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교육의 확대와 국민적 독서운동으로 인한 도서관 수요와 장서 확보가 시급한 지금, 도서관 관계자들은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독서 공간과 다양한 책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6월 제정·공포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도 독서생활화를 위한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면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도서관 리모델링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복합화시설 건립과 연계한 독서교육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서관대회를 통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도 찾아보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분들 모두 대회 기간 동안 성취의 기쁨과 광주의 향기를 함께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